

선책 6·2 지방선거 48시간을 잡아라

“잠들면 진다...” 멈출 수 없는 득표 본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부동층 잠기 안간힘 도보 유세·텐트 노숙·북풍 맞선 ‘남풍 유세’도

6·2 지방선거가 ‘48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이 부동층을 중심으로 막판 표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우선 강준영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30일 ‘남풍 유세단’을 발족, 선거 막판 광주에서부터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남은 48시간동안,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들, 당원 및 당직자들로 구성된 ‘남풍 유세단’을 풀 가동, 광주 전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순화하며 광주 발전을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나타내며, 막판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 후보는 인력시장, 새벽시장, 야근 공장, 편의점, 골목 상가, 장애인 시설 등 주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간다. 정 후보는 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시민들의 출근길을 동행하며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찬용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는 남은 48시간 동안 광주 전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다. 정 후보와 지지자들은 투표 전날까지 노천 텐트에서 숙박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지사 후보군도 막판 ‘48시간’ 동안 총력전을 벌인다.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48시간 릴레이 유세’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심 없는 릴레이 유세를 통해 표표를 독려, 남아있는 부동층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박지사 측에서는 “막판까지 릴레이 유세를 통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무소속 후보들과 접전을 펼치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진정어린 호소”로 막판 48시간 동안 전남지역 호소”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 후보라는 한계를 ‘진심어린 호소’를 통해 극복하겠다”며 “김 후보의 진심어린 호소는 막판 전남 표심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위해 일할 수 있도록 표 달라”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 방송중 눈물의 호소



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70~90%로 당선될 경우 무슨 의미가 있는냐”며 “저 김대식에게도 표를 쥐여 전남도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 “전남을 위해 예산

을 따오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저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중 김 후보 옆에 앉아 있던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도 ‘존경하는 김대식 후보’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향후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김 후보와의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생방송 TV토론에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30일 “정말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남도민들이 집권 여당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다. 도민들이 당만 보지 말고 이 명박 정부에서 전남의 심부름꾼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저를 지지해 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장 지원 나선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영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열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서울시장 아무나 하나’ 개사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영원한 DJ 비서실장’ 박지영, 유시민 돕는다

내일 서구·장성 등 지원유세

민주당 박지영 원내대표(목포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인기 상승기를 타고 있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유세마다 “김

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인 유시민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두 분 대통령께서 ‘이제 됐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 호응을 얻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짙은 구민주계 인사들과 호반 향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세력이 다시 뭉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과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하루 전날인 1일 집중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다.

박 대표는 이날 새벽 광주에 도착, 김선옥 서구청장 후보와 출근 인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장성·나주·강진·해남·진도·신안·목포·무안 등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500만원 “기부냐” “뇌물이나” 논란

광주 남구청장 선거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서 사회복지재단 기부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 논평을 통해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측이 최근 제보를 통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인 A씨의 부인이 지난해 8월 무소속 황일봉 후보의 집에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황 후보가 비서

실장에게 반환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비서실장이 A씨와 상의해 황 후보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복지회에 기부, 경찰이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당시 황 후보가 분명하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A씨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해 비서실장이 대신 기부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후보측은 또 “민주당과 최 후보 측이 선거 막판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정상적인 기부행위를 놓고 경찰이 마치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는 것처럼 구시대적인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 측은 이를 흑색선전 및 유언비어라고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자칫(수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 심리패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굴비세트 -쇠고기 제공 의혹 논란

담양군수 선거

담양군수 선거가 막판 후보 진영 간 금품 제공의혹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최형식 담양군수 후보 측은 무소속 김용주 후보의 굴비 세트 제공 의혹을, 김 후보는 최 후보 측의 쇠고기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후보 측은 30일 무소속 김 후보를 겨냥해 “군청 지역경제과장 재직 당시 지난해 9월 개당 20만 원짜리

굴비 선물세트 100개를 구입, 지역민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근거도 증거도 하나 없는 전형적인 음해”라며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유를 알 수 없고 경찰 수사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 경찰은 무소속 김 후보가 굴비 세트를 주민에게 돌렸다는 의혹과 민주당 최형식 후보와 관련해

서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지자 1명이 지인에게 쇠고기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지역민이 유권자에게 50만 원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 후보 측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굴비, 쇠고기, 돈 제공에 관한 수사를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선거 후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김선옥 북風조장 저지 ‘여성 쏠발 유세’

김선옥 민주당 광주서구청장 후보 측은 30일 밤 8시부터 서구 중앙지구 등에서 100여 명의 운동원들과 함께 한나라당 북풍 조장 저지 및 김 후보 당선을 위한 ‘여성 쏠발 유세’를 시작했다.

쏠발유세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관련선거 범죄혐의자 심판’, ‘깨끗한 여성구청장’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하자’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신성한 쏠발리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북풍을 조장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쏠발 유세는 31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임호경 임대아파트 주거 안정 공약 발표

무소속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는 30일 화순 관내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이날 “화순지역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62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세입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줄이고, 신규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호권 ‘창조적 광주발전 공약’ 내보

조호권 민주당 광주시의원(북구 제5선거구) 후보는 30일 창조적 광주발전 ‘7대 희망약속’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 ▲생활정치 의회 및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현 ▲지속 가능한 광주 만들기 등 7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택, 오픈형 유세로 부동산 공약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의 ‘오픈형 홍보 마케팅’이 선거 막판 부동산의 표심을 끌고가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도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과 벽보,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자신의 후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각종 홍보물에 타 후보와는 달리 자신의 사진을 축소하고, 병장 만기 전역 내용이 적힌 전역증 사진과 함께 7대 선거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냈다.

교육학 박사이기도 한 김 후보의 대표공약은 ▲22개 시·군 교육장 공모제 등을 통한 교육비 리 청산 ▲무상 급식 전면 실시 등 학부모 부담 덜기 ▲2인 1실 교사연구실 등 공관회복 ▲체육시설 개방·노인대학 지원 등 교육 공동체 완성을 비롯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자녀 실력향상·교육복지 실현 등이다.

서대석 길거리 야숙 유세 활동

서대석 국민참여당 서구청장 후보는 30일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의 3박4일 광주 도보 순례단과 함께 길거리 야숙 유세활동에 들어간다. 서 후보는 “투표 전날인 6월1일까지 진행될 ‘발길로 다지는 희망광주’ 캠페인은 민주당의 본고장 광주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으로 2012년 정권교체의 틀을 만드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국민참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보신당 등은 물론 민주당 후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도보순례단이 이날 저녁 길거리 야숙을 통해 유권자들과 허심탄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많은 서구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철 ‘어등산 생태 훼손 말아야’

신중철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30일 민주당 홍의덕 국회의원과 함께 어등산을 오르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이날 흥 의원과 함께 어등산을 오르며 쓰레기 줍기 등 등산길 정화활동도 벌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인 어등산개발에 대해서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광산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서관위 금품·흑색선전 집중단속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전까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인 위반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선거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각 구 선거위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선다.

김장환 ‘교육감 선거 정치화 우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들은 전남교육이 낙후성을 타고 비롯한 모든 성과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전남교육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화하고, 이념의 투쟁장으로 몰아가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특정 정당 당원과 사회단체들이 가입해 전남교육계를 흔들려는 비난·비방 선거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교육의 정치 세력화를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